

# 황금씨앗

제 46 호

2022년 12월

명혜망: [www.minghui.org](http://www.minghui.org) (인터넷봉쇄들과 프로그램으로 방문 가능)

- ◆ 몰아치는 비바람을 이겨내니 마침내 무지개가 뜨다
- ◆ 가정부는 전염병으로 사망했지만 구순 노인은 별로 없었다
- ◆ 장쩌민이 죽기 전 가장 두려워했던 일
- ◆ 당대 최대 매국노



목록

CONTENTS

명혜 간행물

황금씨앗

제 46 호

명혜 간행물은  
사비로 편집 인쇄합니다  
읽은 후 널리 전하시면  
공덕이 무량합니다



드리는 말

동짓날 전염병을 쫓는 풍습 ..... 3

내 고향 사람들

인덕(仁德)을 베푸는  
아름다운 이웃 사이 ..... 4  
물에 뛰어들어 사람을 구하다 ..... 6

덕을 쌓아가는 집

몰아치는 비바람을 이겨내니 마침내  
무지개가 뜨다 ..... 8

세상은 넓다

뉴질랜드, 호주 대형 퍼레이드서  
파룬궁 단체 1등상 수상 ..... 14  
가정부는 전염병으로 사망했지만  
구순 노인은 별고 없었다 ..... 16

선악인과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는 어떻게  
전 중국인에게 해를 끼쳤는가? ..... 18  
장쩌민이 죽기 전 가장 두려워했던 일 ..... 22

옛사람의 지혜

북주 무제가 지옥에 떨어진 이유 ..... 24

마음으로 알다

당대 최대 매국노 ..... 26  
장쩌민 죽음을 경축 ..... 27



동짓날은 1년 중 북반구에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하루입니다. 통상적으로 12월 21일에서 23일 사이인데 올해(2022년)는 12월 22일이었습니다. 동지가 지나면 낮이 조금씩 길어지고 밤이 점차 짧아집니다. 이날부터 음기가 점차 약해지고 양기가 돌아옵니다. 때문에 동지는 음이 깎이고 양이 살아나는 관건적인 절기입니다.

‘동짓날은 큰 설날’이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확실히 중국 고대에서는 동지는 절기였을 뿐만 아니라 아주 성대한 명절이었습니다.

화하민족의 시조 황제(黃帝) 시기에 동지는 바로 새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주나라에서도 동지를 새해 첫날로 정했습니다. 진한(秦漢) 이후 동지가 더는 새해가 아니었으나 모든 성대한 의식은 여전히 유지되었습니다. 동짓날에 황제는 신하를 거느리고 하늘에

제를 지내고 백성은 조상에게 제를 올렸습니다.

동짓날에는 또 음식에 깃든 전설과 풍습이 지켜져 내려오는데 그중 팔으로 전염병을 쫓는 것도 있습니다. 남조(南朝) 《형초세시기(荆楚岁时记)》 기록에 보면, 공공씨(共工氏)의 재주도 없고 방탕한 아들 하나가 동짓날에 죽어 역귀(疫鬼)가 되어 인간 세상에 해를 끼쳤는데, 그 아들이 생전에 붉은 팔을 두려워했기에 동짓날 팔죽을 쑤어 역귀를 쫓고 액막이를 했다고 합니다.

이 풍습이 오늘까지 이어져 동짓날 상하이 사람들은 팔 참쌀밥을, 산시(陝西) 일대 사람들은 팔죽을 먹고 있습니다. 중국 전통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은 한국에서도 동짓날 팔죽을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여전히 유행하고 있어 동짓날 뜨끈한 팔죽 한술을 쑤어봄도 좋아 보입니다.

## 인덕(仁德)을 베푸는 아름다운 이웃 사이

옛말에 ‘인덕을 베푸는 곳이 아름답다’(里仁为美)는 말이 있다. 아래에 고대 이웃 사이에 있던 이야기들을 소개해보려 한다.

### 양주가 당나귀를 팔다

명나라 사람 양주(杨翥)는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고 집안이 가난했다. 한번은 이웃이 닭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는 양씨 집 사람이 훔쳐갔다고 욕설을 퍼부었다. 양주 집 사람들은 화가 나 찾아가 따지려 했지만 양주는 오히려 “이곳에 성이 양씨인 집안이 우리집만 있는 건 아니니 어찌 우리를 욕하는 것인지 알 수 있겠느냐?”

욕하게 놔두어라!”라고 말했다.

나중에 양주는 고관이 되어서도 여전히 인자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유지했다. 명나라 예부상서(礼部尚书) 시절 경성에 살면서 검소하게 지냈고, 평일에 조정에 나가거나 외출할 때 가마를 타지 않고 당나귀로 대신했다. 양주는 그의 당나귀를 매우 좋아해 조정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늘 직접 당나귀에게 빗질해주고 먹이를 줬다. 그에게 한 이웃이 있었는데 늘그막에 아들을 얻어 매우 기뻐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양주의 당나귀 울음소리만 들으면 끊임없이 울어 나날이 여위어갔다. 이웃이 이 사실을 양주에게 알리자 양주는 두말없이 당



나귀를 팔았고, 이때부터 외출하거나 조정에 갈 때 모두 걸어서 다녔다.

### 사마휘(司马徽)가 돼지를 양보하다

동한의 유명인사인 사마휘는 수경 선생(水镜先生)이라 불렸다. 뛰어난 재능을 발탁하는 것으로 유명했고 일찍이 유비에게 제갈량을 추천하기도 했다. 한번은 이웃이 돼지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공교롭게도 사마휘네 돼지와 비슷하게 생겨서 이웃이 사마휘의 돼지를 자기 집 것이라고 우겼다. 사마휘는 논쟁하지 않고 “그럼 갖고 가십시오”라고 말했고, 이웃은 사양하지 않고 돼지를 집으로 몰고 갔다. 며칠 후 이웃은 다른 곳에서 자신의 돼지를 발견하고는 부끄러워하며 돼지를 돌려보냈다. 사마휘는 그를 꾸짖기는커녕 사리가 밝고 잘못을 알면 고칠 줄 안다고 칭찬했으며 이웃은 이에 크게 감동했다.

### 도둑을 감화시킨 위령의

조주(현재의 산둥성 허쩌)의 위령의(于令仪)는 사람됨이 충직하고 온순하며 만년에 집안이 부유했다. 어느 날 밤, 도둑이 들어 붙잡고 보니 이웃 집 아들이었다.

위령의가 왜 도둑질 했냐고 묻자 그



는 가난해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으니 도둑은 1만 전만 있으면 음식과 옷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위령의는 액수대로 그에게 돈을 줬고 그가 떠나자 다시 불러와 말했다. “가난한 네가 1만 전의 돈을 짊어지고 가면 밤에 순찰하는 사람에게 심문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날이 밝은 후에야 그를 돌려보냈다. 도둑은 매우 부끄러워했고 결국 선량한 백성이 됐다. 위령의의 덕행은 그의 후손에게까지 복을 내려 아들과 조카가 모두 진사에 합격하고 그의 집은 현지에서 명망 있는 가문이 됐다.

현대인은 개성을 중시하고 우열을 가리기 좋아하며 사회 전체가 포악한 기운이 넘쳐흐른다. 이웃과 어울려 지낼 때 만약 우리가 고대인의 품채와 도량을 배우고 일에 부닥치면 남을 위해 생각하고 남을 너그럽게 대한다면, 우리가 사는 지역이 서로 돕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곳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손에게 복을 쌓게 될 것이다.

# 물에 뛰어들어 사람을 구하다

■ 글/ 진련(金蓮, 라오닝)

우리 집 창밖에는 길가에 인접한 화원이 있고 아래는 사방이 불룩하고 중간이 깊은 큰 호수가 있다.

2022년 10월 14일 오전 10시경, 갑자기 울음소리가 들려 창밖을 내다보니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열은 흰색 솜옷을 입은 40세쯤 되는 여성이 무척 슬프게 울면서 호수로 들어가고 있었다.

‘자살하려는 게 아닌가?’ 전염병 기간과 이전에도 호수에 뛰어들어 자살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창밖을 향해 소리쳤다. “누가 그녀를 끌어 올려요! 더는 앞으로 가면 안 돼요! 위험해요!” 하지만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 또 소리쳤다. “누가 경찰에 전화 좀 해주세요!”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했다.

그 여성은 계속 호수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리홍쯔(李洪志, 파룬궁 창시자) 사부님께서 “자살은 죄가 있는 것이다”, “살인 방화하는 것을 보고도 당신이 상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心性(심성) 문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좋은 사람을 체현해 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신 두 마디 말씀이 떠올랐다.

우리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주민센터가 있었는데 이때 그곳 서기가 사람을 데리고 왔다.

나는 바지를 걷어 올리고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호숫물은 뼈에 사무치게 차갑고 돌이 미끄러워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중년 여성은 내가 오는 것을 보고 계속 소리쳤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나는 다가가 그녀의 팔을 잡고 말했다. “빨리 돌아가세요!” 그녀를 당기며 되돌아가려 했으나 끌어당길 수 없었다. 그녀는 크게 울었고 난 설득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면 말씀해보세요,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요! 힘내세요!” 그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돌이 미끄러운데 두 사람이 서로 밀고 당기다가 모두 물속에 넘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호숫가를 향해 소리쳤다. “한 사람 더 오세요!” 그러나 오는 사람이 없었다.

이때 나는 생명을 구하는 ‘9자진언(九字真言)’이 생각나 그녀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真善忍

好-진선인은 좋습니다)! 사부님, 그녀를 구해주세요.” 몇 번이고 반복해 외치자 신기하게도 그녀는 울지 않았고 이성적으로 바뀌었다. 그녀가 “빨리 올라가세요, 물이 너무 차가워 견딜 수 없으니 빨리 올라가세요”라고 말하자 내가 말했다. “당신이 올라가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올라가나요?!” 결국 내가 끌어당기자 그녀는 따라왔고 우리 둘은 호수 언덕으로 올라왔다.

주민센터 서기가 그녀를 계단으로 데려가 앉혔다. 내 다리는 호숫물에 얼어서 빨갱게 됐고 바지도 다 젖었다.

호숫가 사람들과 이웃들은 모두 감탄하는 눈빛으로 날 보고 있었고 이웃 아주머니는 4층에서 소리쳤다. “대단합니다! 정말 용감해요!” 한 할머니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자네는 정말 훌륭해! 큰 덕을 쌓았어! 자네 집 아이는 분명 잘 되겠어!” 이웃과 주민센터 서기, 파출소 경찰은 모두 내가 파룬궁을 연마하는 것을 알고 있다.



## 혜안으로 진실 간파

파룬궁 서책에는 살생과 자살이 모두 유죄라고 명시돼 있다. 진정한 파룬궁 수련인은 결코 살생, 자살, 분신자살을 하지 않는다. 22년 전 중공 장쩌민 집단은 파룬궁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기 위해 ‘천안문 분신자살 사기극’을 제작했다. 이 분신자살은 이미 국제사회와 국내외에서 사기극으로 밝혀졌다. 모두들 냉정히 생각해보라, 만약 파룬궁이 정말 중공이 말한 것처럼 그랬다면 아무도 연마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세계 백여 개 나라에 전파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많은 수련자가 석사나 박사 학위를 가진 지식인이다.

# 몰아치는 비바람을 이겨내니 마침내 무지개가 뜨다

## 세상의 온갖 풍상을 겪은 우리 대가족

■ 글/ 정수이(靜水, 중국 지린성)

나는 어렸을 때 ‘말괄량이’였는데 하고 싶은 일은 꼭 해야 했다. 비록 키가 작고 여윈 여자아이였지만 싸움에 주눅이 든 적이 없었다. 독서를 즐기다 보니 《서유기》, 《삼국연의》, 《홍루몽》, 《봉신연의》 등 고전을 즐겨 읽었고 머릿속에는 늘 “사람은 왜 죽는 걸까?”,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라는 문제들을 생각해서 어른들은 쓸데없는 생각만 한다고 했다.

### 썩쓸한 결혼

우리 지역 여자들은 보통 스무 살이면 결혼한다. 나는 여러 번 맞선을 봤으나 성사되지 않아 25살이 될 때까지 시집가지 못했다. 내가 까다롭다며 엄마가 자주 꾸짖자 난 화가 나서 말했다. “욕하지 마세요, 또 누가 혼담을 꺼내면 바로 동의할게요. 절름발이든 장님이든 남자면 결혼할 거예요!”

1993년에 누군가가 츠(馳, 가명) 씨

를 소개해줬다. 그는 키가 180cm이고 군대를 다녀왔지만 학식이 없고 집안이 가난했다. 3개월 후, 나는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물을 요구하지 않고 그와 결혼했다. 시댁은 대가족으로 그의 두 형과 누나 한 명은 이미 결혼했고 여동생 한 명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

결혼 후에야 나는 남편이 직업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매일 도박하며 세월을 보냈고 때로는 싸우기도 했다. 어머니가 내게 주신 400위안도 그가 결혼한 다음날 날 속이고 가져다 도박으로 잃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임신했는데 과일을 먹기도 어려웠다.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았고 우리 둘은 입만 벌리면 싸웠다. 결국 우리는 상의 끝에 아기가 태어난 후 이혼하기로 했으며 아들이면 남편이 양육하고, 딸이면 내가 데려가기로 했다.

1995년, 딸이 한 살 때 남편과 이혼



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결핵에 걸렸다. 병원에 다녀오자 남편은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먼저 직장을 구해 그의 병을 치료해주고 병이 다 나으면 이혼하기로 했다.

이웃의 도움으로 나는 도매상가에서 신발 파는 일을 찾았는데, 매일 아침 6시 30분부터 저녁 5시 30분까지 긴 시간 일했다. 돈을 아끼기 위해 버스를 타지 않고 매일 낡은 자전거를 타고 출근했다. 겨울 길은 빙판이라 자전거를 타면 쉽게 넘어질 수 있어서 몸에 자주 멍이 들었다. 그때 매월 600위안의 월급을 받았는데 100위안을 남겨서 점심을 먹고 나머지 500위

안은 모두 남편에게 주면서 좋아하는 것을 사 먹으라고 했다. 남편은 매우 감동했다. 3년 후 그의 결핵이 완전히 나았다.

### 운 좋게 대법을 얻다

1997년 어느 날, 한 동료로부터 《파룬궁(法輪功)》이라는 책을 보았고 다 보고 나서 나는 “이 책이 너무 좋아요. 저도 파룬궁을 연마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동료 집에 가서 파룬궁 사부님의 설법 비디오를 보았다. 연속 9일간 보고 또 파룬궁의 5가지 공법을 배웠으며 구하기 힘든 파룬궁 책도 운 좋게 구

했다.

파룬궁을 수련한 후 법에서 덕은 좋은 것이며 수련에서 공이 자라는 것은 전적으로 그것에 달려 있음을 깨달았다. 싸우고, 욕하고, 심지어 짜려 보는 것도 덕을 주기 때문에 나는 이 나쁜 버릇을 고쳐야 했다.

법에서는 수련자는 살생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그래서 수련 후 살아있는 생선을 먹지 않고 냉동 생선만 먹었다.

사부님께서서는 여러 환경, 여러 계층에서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는지, 어떻게 수련해 자신을 향상시키는지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수련자로서 누구에게나 잘 대해야 하고, 남을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되며, 집에서는 고생을 참고 견뎌야 하고, 장사는 공평한 거래로 속이지 않아야 하며, 타인이 자신을 나쁘게 대하면 그것은 업력윤보(業力輪報)이니 내가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으로 생각한다. 병은 업력으로 초래된 것으로서 큰 업은 큰 병에 걸리고 작은 업은 작은 병에 걸리며 사람이 된 진정한 목적은 바로 반본귀진(返本歸真)임을 깨달았다.

파룬따파(法輪大法)는 내 마음속 모든 의혹을 풀어줬다. 수련하고 완전히 달라진 나는 욕도 싸움도 안 하고 매일 즐거웠다. 동료가 무슨 보물을 주었

기에 매일 이렇게 즐거워하냐고 물었다. 나는 그들에게 “파룬궁을 연마해요. 이 공법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리게 하니 너무 좋아요”라고 말했다.

내 주변의 모든 것도 변하고 있었다. 시어머니 얼굴에 웃음이 점점 많아졌다. 남편은 마을의 전기 기술자가 되어 가정을 돌보기 시작했고 때로는 그릇과 대야를 사 왔다. 특히 내 수련을 지지해 정말 매우 기뻐다.

### 빛을 값으며 착실히 수련하다

좋지 않을 때도 있었다. 한번은 나와 남편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어찌 된 일인지 갑자기 내 뺨을 두 대 때렸다. 나는 영문도 모른 채 울면서 뛰어나갔다.

나는 수련자가 참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부님께서서는 《전법륜(轉法輪)》에서 제자에게 “때려도 맞받아치지 않고 욕해도 대꾸하지 않으며”라고 말씀하셨다. 괜히 뺨을 맞고도 참아야 한다니 수련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다. 어떡하지, 돌아가서 나도 두 대 때리고 화풀이를 할까? 안 돼! 수련을 끝까지 해야 돼. 나는 눈물을 닦고 다시 방으로 가서 상을 치웠다. 그 후 남편은 왜 날 때렸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나는 갑자기 이견 사부님께서 내가 “때려도 맞받아치지

않고 욕해도 대꾸하지 않으며”를 해낼 수 있는지 시험하신 것임을 깨달았다. 그가 나를 도와 심성을 제고시켜준 것이다.

내 심성 제고에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은 남편의 둘째 형이다. 시어머니에게 채소밭 2무(畝)가 있는데, 원래는 나와 남편에게 주려 하셨다. 그런데 남편의 둘째 형이 맨날 시어머니를 찾아가 이 땅을 달라고 해 시어머니는 이 땅을 그에게 주었다.

둘째 형은 밭에 집을 더 짓고 철거할 때 보상금을 더 받으려 했다. 그러나 그는 돈이 없자 누가 밭에 집을 지으면 철거 때 배상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공언했다. 남편은 집안의 모든 돈을 꺼내 그 밭에 하우스, 그리고 차고와 집을 지었다. 하지만 막상 철거할 때 둘째 형과 형수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몰래 보상금을 받고 이사 갔다.

나와 남편은 정말 화가 치밀었다! 수련자로서 이 마음을 내려놔야 함을 알고 있으나 몇십만, 백만 위안의 돈을 내려놓으려 하니 정말 쉽지 않았다! 그날 마음이 정말 얼치락뒤치락했으며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남편에게 “우리 재산이 아닐 거예요. 가족이 안전하고 건강하기만 하면 돼요”라고 권유했다. 1년이 지나서야 나는 마침내 이

마음을 내려놨다. 서로 빛진 것이 없다면 원한이 있을 수 있겠는가, 누구의 빛이든 모두 값아야 한다!

### 올케와 시누이의 인연

남편의 여동생은 마음이 나쁘지는 않고 정의감이 있지만 성격이 억척스럽고 성질이 급해서 사이가 쉽게 틀어질 수 있었다. 어느 휴일, 집에서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시누이가 내가 뒤에서 자신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으로 잘못 들었다. 시어머니가 증언해주셔도 믿지 않았고 우리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욕을 멈추지 않았다.

시누이는 내게 “올케는 파룬궁을 연마하니 진선인을 말하지 않아? 그러니 참아야 해, 못 참으면 가짜 수련이야.” 그녀는 또 내 남편에게 날 고자질하며 혼내라고 했다. 실컷 욕하고 나서 또 “셋째 올케가 잘못 한 게 맞지?”라고 다시 물었다. 나는 웃으면서 “잘못했어, 뒤에서 다른 사람을 담론하면 안 되지”라고 말했다. 그제야 그녀는 화를 풀었다.

시누이는 20년간 나와 함께 살고 내가 잘하지 못하면 그녀는 조금도 거리낌 없이 면전에서 지적했다. 내가 잘할 때는 파룬궁이 정말 좋다고 했다. 내가 중공 인원에게 괴롭힘

을 당할 때 그녀는 최선을 다해 날 보 호했고 내가 의지할 곳을 잃고 떠돌 아다니자 날 위해 이 대가족을 최선 을 다해 돌봤다.

어느 날 밤, 경찰 두 명이 사복 차림 으로 우리 집 대문 밖에 차를 세우고 문을 두드리지 않고 곧장 마당으로 들어왔다.

집에 있던 시누이는 큰소리로 아버 지를 불렀다. “아빠! 빨리 나가서 대 문을 잠가요, 우리집 마당에 도둑이 들었으니 때려죽여야 해요!” 두 사 람은 서둘러 “우리는 파출소 경찰이 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문밖으로 도 망쳤다. 시누이는 말했다. “너희 둘은 무슨 꿍꿍이가 있어 가족(경찰복)도 감히 못 입고 뭘 하려 밤중에 온 거 야? 왜 이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지?! 남들은 너희를 두려워하지만 우리 두 령지 않으니 앞으로 오지 마!” 두 경 찰은 문을 나서자마자 차를 타고 달 아났다.

또 한번은 파출소 사람이 집에 소란 을 피우려고 왔는데 우리 가족은 식 사하고 있었다. 내가 화장실에 간다 는 핑계로 일어나자 경찰이 내 뒤를 바짝 따랐다. 내가 시누이에게 눈짓 하자 그녀는 바로 일어나 나와 경찰 사이에 끼어 이야기를 나누며 이런저 런 잡담을 했다. 경찰이 정신을 차렸 을 때는 난 이미 멀리 떠나 있었다.

현지의 유명한 맹인 점쟁이가 시누 이에게 점괘를 쳤는데 자녀, 결혼, 재 물 운 등은 모두 맞았지만 유독 47세 의 ‘생사의 고비’는 겪지 않았다(현재 52세). 정의를 지지하고 대법제자를 보호한 덕에 운명이 바뀐 것이다.

### 대법이 내린 복

최근 몇 년간 남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 건강이 아주 좋아졌고 싸 움도 도박도 하지 않았으며 때로는 날 도와 진상을 알리고 삼퇴(중공 3 대 조직인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탈 퇴)를 권하기도 했다. 그는 또 공장 건물을 지키는 한가한 일자리를 찾았 는데 집에서 가깝고 임금도 많았다. 다들 이것은 돈을 거저 얻는 일이라 고 했다.

딸도 대학 졸업 후 일하고 있는데 성실하고 착실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 고 자신의 순결을 지키고 있다. 부녀 는 모두 자기 차를 갖고 있다.

우리 가족들은 ‘파룬따파하오(法輪 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 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 다)’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고 또 대 법제자를 보호하고 복을 받아 착실하 고 편안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 몰아치는 비바람을 이겨내니 마침내 무지개가 떴다!

## 세계 백여 개 나라에 전파된 파룬궁

파룬따파(法輪大法-파룬궁이라고 도 함)는 리홍쯔(李洪志) 선생께서 전하신 불가(佛家)의 상승(上乘) 수 련대법이다. ‘진선인(真·善·忍)’을 근 본 지도로 하며 5가지 간단하고 아름 다운 공법 동작을 포함한다.

### ● 사람을 선(善)하도록 가르치다

파룬궁은 수련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진선인의 원칙을 따르고 성실하고 선량하며 관대한 사람이 되도록 요 구한다.

### ● 건강에 이롭다

1998년 중국 국가체육총국은 전국적 으로 5차례 의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파룬궁의 질병 치유와 건강개선 효과 가 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사회에 이롭다

1998년 차오스(乔石) 등 중국의 일부 퇴직한 노간부들은 수개월간의 조사 끝에 ‘파룬궁은 나라와 민중에게 백 가지 이로우미 있을 뿐 한 가지 해로 움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 ● 세계에 널리 전해지다

파룬궁은 100개 이상의 나라와 지 역에 널리 전파됐고 《전법륜(轉法



輪》은 40개 이상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에서 출판, 발행됐다.

2022년 5월 13일은 파룬따파 30주년 기념일로 전 세계 수천 명이 넘는 정 치인이 리홍쯔 선생님과 파룬따파가 인류의 건강과 복지에 이바지한 뛰어난 공헌을 포상하고 찬양했다.

### ● 어떻게 배우는가

《전법륜》을 통독하거나 순서에 따 라 리홍쯔 선생님의 설법 비디오나 녹음을 시청하거나 듣는다. 리 선생 님께서 가르치는 공법 비디오를 보고 5가지 공법을 배우거나, 파룬궁 수련 생을 찾아 공법을 배울 수 있다. 파룬 따파 서적과 비디오는 중국에서 봉쇄 돌과 프로그램으로 falundafa.org에 접속해 무료로 읽을 수 있다.

# 뉴질랜드, 호주 대형 퍼레이드서 파룬궁 단체 1등상 수상



작은 사진:  
2022년 9월 17일, 호주 수련생들이 퀸즐랜드 터움바 꽃축제 퍼레이드에 참가해 1등상을 받았다. 이것은 호주 및 남반구 전체에서 가장 오래된 커뮤니티 퍼레이드다. 터움바 시의원 제임스 오셔(James O'Shea)는 “파룬궁 수련생들이 진선인을 전파하는 것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라고 말했다.

큰 사진:

2022년 11월 26일, 뉴질랜드 파룬궁 수련생은 항거레이시 크리스마스 퍼레이드에 참가해 1등상과 1천 달러(뉴질랜드 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직접 상을 수여한 빈스 코쿠룰로(Vince Cocurullo) 시장은 파룬궁 단체의 공연을 즐겼다. 현지인들은 진선인 이념을 찬양하고, 중국 고대 당나라 의상을 입은 파룬궁 천국악단을 좋아했다.





# 가정부는 전염병으로 사망했지만 구순 노인은 별고 없었다

## ■ 글/ 라오어(饶娥, 브라질)

나는 침구사이며 마리아 수잔나 (Maria Suzana)라는 오랜 친구가 있다. 중공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기승을 부릴 때 마리아의 가정부가 전염병으로 사망했다. 당시 95세의 마리아는 밀접 접촉자였으나 무사했다.

나와 마리아는 2003년에 서로 알게 됐다. 그녀는 심장이 선천적으로 약해서 혈액 순환이 좋지 않았다. 허리와 팔다리도 자주 아팠다. 마리아는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 진료소에서 침을 맞았다. 그녀와 접촉하면서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소개해줬더니 대법의 이념에 매우 공감했다. 우리는 헤어질 때마다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하며 인사했다.

마리아는 늦게 결혼해 자녀가 없었고 남편과 사별한 뒤로는 혼자 살았다. 그녀의 가정부는 마리아가 집에 사람이 오는 걸 싫어했으나 파룬궁 수련생이 집에 찾아와 함께 《전법륜(轉法輪)》을 읽는 것은 허락한다고 했다. 마리아는 몇 개월간 여러 수련생과 함께 《전법륜》을 한 번 읽었



브라질 95세 노인 마리아

다. 그녀는 《전법륜》을 읽고 나면 늘 아주 만족스러워하며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이 참 좋아요. 깊은 뜻이 있어요”라고 말했다. 마리아는 건강해져 해마다 혼자 외국 여행을 갔는데 92세가 되어서야 친척과 함께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다. 지금도 그녀는 머리가 맑고 사유가 민첩하다.

2020년 3월에 중공 바이러스가 브라질에 퍼지기 시작했다. 매일 많은 사람이 감염돼 심각한 상황이었다. 마리아의 가정부는 청소하고 밥을 짓는 등 그녀와 밀접하게 접촉했다.

하루는 마리아의 가정부가 몸이 불편해 다음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중공 바이러스 확진을 받고 바로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며칠 안 돼 폐 70%에 물이 차서 사망했다. 하지만 밀접 접촉자였던 마리아는 아무 일도 없었다.

마리아는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진선인(真·善·忍)에 동화됐어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생각이 나면 바로 ‘파룬따파하오’를 염했다. 그녀는 친척과 친구들과에게도 중공 마귀를 멀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마리아의 조카는 브라질에서 유명한 의사다. 조카 내외는 재작년 중공으로부터 무료 중국여행 초청을 받았다. 마리아는 조카에게 가지 말라고 권했다. 다행스럽게도 조카는 병이 나서 가지 않았다.

2021년 1월에 마리아의 심장이 갑자기 강렬하게 떨리더니 점점 심부전이 됐다. 매우 위급해서 즉시 병원으로 갔다. 그녀는 응급실에 15일간 입원했고 마침내 위험 속에서 살아나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병문안 갔을 때 마리아는 “파룬따파하오”를 읊는 것을 잊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녀는 “이번에 내가 위험에서 넘어갈 수 있었던 건 분명히 신께서 보호하신 거예요!”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계속 읊으라고 했다.

며칠 지나 다시 병문안을 가자 그녀는 이미 평소처럼 웃으면서 아무런 불편함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녀

는 내가 가져간 ‘명혜국제(明慧国际)’ 잡지를 손에 들고 베이징 천단(天坛) 사진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중국 전통문화에서 하늘에 대한 경외와 감사는 정말 대단히 중요해요. 현대인은 이런 걸 모르게 됐으니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녀는 진지하게 “며칠 후 우리 집에 와서 연공 동작을 좀 가르쳐주세요”라고 말했다.

**마음에 정기(正氣)를 간직하면  
샷된 것의 교란을 받지 않는다**

이번 전염병에서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찌싼런하오(真善忍好)’ 9자진언(九字真言)을 읊어 세계 각지 다양한 민족의 많은 전염병 환자가 회복했다. 어떻게 이런 신기한 효과가 있을까? 《황제내경》은 “마음에 정기(正氣)를 간직하면 샷된 것의 교란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파룬따파(法輪大法)는 고덕(高德) 불가(佛家) 대법으로, 사람들이 진심으로 9자진언을 읊으면 우주의 바른 에너지와 공진이 일어나 면역력이 증진돼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



2022년 11월 27일 베이징에서 발생한 집회에서 수많은 민중이 백지를 들어 중공에 항의했다.

##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는 어떻게 전 중국인에게 해를 끼쳤는가?

■ 글/ 칭위안(淸源)

오늘날 중공의 엄격한 전염병 예방 정책과 잔인한 안정유지 형식에 직면해 많은 중국인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날 파룬궁수련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오늘날 많은 중국인에게서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의 원흉이 바로 장쩌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아래에 장쩌민이 전체 중국인에게 어떻게 피해를 줬는지 따져보자.

### 전 국민에 대한 디지털 감시

중국인들은 한때 구글 검색창을 이

용하고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경험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외부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하다. 거리, 지역사회에 카메라가 뽁뽁하게 깔려 있어 노란색, 빨간색 코드는 마치 전자 사슬처럼 순식간에 사람을 제자리에 묶어서 꼼짝도 할 수 없게 한다. 이것은 장쩌민이 파룬궁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인터넷에 유포되는 중공 박해의 진상을 차단하기 위해 시작한 것인데,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장쩌민은 아들 장롄헝(江綿恒)에게 거액을 들여 인터넷 방화벽을 만들게 했으며 ‘금순공정(金盾工程)’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후 전국 인터넷을 거대한 구내망으로 만들어 국제 인터넷과의 소통을 차단했다.

### 강제수용소와 비밀 감옥

3년간의 전염병 기간, 각지에서 사람들을 강제로 격리시설에 보냈다는 보도는 흔히 볼 수 있다. 가족, 부모, 아이를 강제로 분리, 격리해 열악한 환경에 내버려 두는 것은 마치 강제수용소와 같다.

어떤 사람들은 격리시설이 중공이 신장 위구르족을 수감한 경험을 보급한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사람들은 신장 강제수용소가 파룬궁수련자를 대규모로 수감하던 복제품인 줄 모른

다. 21세기 초, 장쩌민은 전국 각지에 수많은 노동수용소와 ‘법제 학습반’을 증축해 ‘진선인(真·善·忍)’ 믿음을 견지하는 수백만 수련자를 수감하도록 지시했다. 이곳에는 또 수백 가지 참혹한 고문이 있고 밤낮없이 노예처럼 일하며 사람들이 자고 화장실에 갈 권리를 박탈했다.

### 성적 학대와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신장 수용소에서 탈출한 여성들이 중공의 강간죄를 폭로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사실 장쩌민 치하의 중공은 일찍이 여성 파룬궁수련자들에게 그런 짓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장쩌민과 공산당은 성폭력과 성적 학대를 사상 개조 수단으로 삼았다. 라오닝성 마싼자(馬三家) 노동수용소에서 18명의 여성 수련자가 남자 감방에서 강패들에게 윤간당했다. 작가 두빈(杜斌)의 ‘음도 혼미(陰道昏迷)’라는 책에서 언급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성폭력은 원래 파룬궁수련자에게 믿음과 착한 사람이 됨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것이었다!

수년 전 중공 두목의 초상화에 먹물을 뿌리는 소녀와 과감히 말하는 시골 여교사가 정신병원에 수감된 사건은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파룬궁수련자가 소위 ‘정신병’에 걸려 병원에 보내진 사건은 1000명에 육박한다. 그들은 신념을 포기하지 않아 정신이 붕괴될 때까지 중추신경 파괴 약물을 주입당해 어떤 이는 처참하게 세상을 떠났다.

### 명실상부한 경찰국가

박해 처음 몇 년간 중공은 파룬궁 박해에 매년 국민 총생산액의 4분의 1을 썼는데 박해는 전적으로 돈에서 나온 것이다. 2012년에 이르러 정법 위원회가 확보한 시스템 안정유지비는 국방비보다 많았다. 이때부터 중국은 점차 경찰국가로 변모했다.

### 마피아가 나라 다스리자 억울함 호소할 곳 없어

당초 많은 사람이 중공 장쩌민 집단의 흑색선전을 믿었고 공안, 검찰, 법원은 파룬궁 박해 공구로 전락했다. 그 결과 사회를 유지하는 모든 공공 질서와 도덕이 파괴돼 더는 공권력의 악행을 제약할 힘이 없어져 악인들이 거리낌 없이 날뛰게 됐고 현재 모든 사람은 이 악과의 응보를 겪고 있다.

오늘날 철거민, 농민공, 금융 난민이 청원하면 붙잡히고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는데 이것은 그해 파룬궁

수련자들이 청원했을 때 각지 공안이 파룬궁이라는 말만 들으면 다짜고짜 경찰차에 납치해 감옥에 넣기 시작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늘날 인권 변호사와 반체제 인사들이 ‘선동죄’와 ‘말썽을 일으킨다’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사실 전에 수십만 수련자들이 법을 왜곡한 판결을 받고 감옥과 구치소에 수감된 것이 선례가 됐다.

오늘 경찰이 마음대로 길 가는 사람을 막아서 가방을 뒤지고 휴대폰을 확인하고 대낮에 민가에 침입해 사람을 붙잡고 때릴 수 있는 것은, 20여 년간 중국 공안이 파룬궁수련자에게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오늘날 불상과 십자가를 강제로 허물고 지하교회를 없애는 것은 파룬궁 믿음에 대한 박해의 연장선이다.

오늘날 중공은 ‘하층민’을 없애고 ‘지역사회’ 감염자를 제로화하려고 하며, 장쩌민은 당초 “3개월 안에 파룬궁을 없애겠다”고 떠벌렸다. 그러나 23년이 지나서도 파룬궁은 ‘제로화’되지 않았고 전 세계로 전파됐다.

### 생체 장기적출

최근 몇 년간 중국 본토에서 대학생, 심지어 초중고생의 갑작스러운 실종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살아있는 장기 공여자로 의심받고 있으며 배후에는 은밀한 살인 체제와 범죄 사슬이 있다.

2006년 파룬궁수련자가 생체 장기 적출 테러를 처음 폭로했을 때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다. 국제 수사관이 중공 관리의 이름으로 보시라이(薄熙來)와 전 인민해방군 위생부장 바이수중(白书忠)에게 전화한 녹음 파일에서 장쩌민이 파룬궁수련자를 대상으로 장기적출을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장쩌민 일당의 추진으로 중공의 군대, 무장경찰, 정법(政法) 계통, ‘610’(불법적인 파룬궁 박해 조직), 의료 시스템이나 장기 밀매업자는 파룬궁수련자의 장기를 적출하는 시스템을 형성해 산업화했다. 그들은 필요에 따라 살인하고 폭리를 취하는데 멈출 수 없어 이제는 학생과 서민에게까지 검은손을 뻗치고 있다.

### 사회 전체의 도덕이 크게 타락하다

오늘날 중국에서 탐관이 횡행하며 인심이 타락한 것은 모두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에서 비롯됐다.

당시 박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경찰은 파룬궁 한 사람을 잡는 데 얼마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제보자에게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했다. 박해에

서 가장 악랄했던 경찰은 장쩌민의 접견과 포상을 받았다. 박해를 가장 열심히 해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오른다. 좋고 나쁨, 시비, 선악 모든 것이 정상사회와 반대로 뒤바꾸는 것이 마귀 통치의 논리다. 전통적인 예의지국이 중공과 장쩌민에 의해 악독한 세상으로 변했다.

### 맺음말

장쩌민은 중공의 악(惡)의 집대성자로서 오늘날 중국사회의 모든 문제는 장쩌민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공은 이미 그의 파룬궁 박해 형식을 신장 위구르족, 권리수호 집단, 반체제 인사, 전염병에 걸린 중국 민중에게 복제해 보급했다.

극악무도한 장쩌민이 죽어 마침내 형신전멸(形神全滅)해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는 여정을 시작했다.

오늘날 중공과 장쩌민이 서로 이용하며 파룬궁을 박해해 빚어낸 악과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중국 전체가 화산처럼 전 민중이 박해와 싸우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백지운동’은 사람들의 각성과 중공에 대한 분노의 폭발을 상징한다. 하늘이 중공을 멸망시키는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 장쩌민이 죽기 전 가장 두려워했던 일

옛말에 ‘선악에는 필연코 응보가 있다’라는 말이 있다. 장쩌민은 죽었으나 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장쩌민은 현재 무간(无间) 지옥에서 뜨거운 불에 지져지면서 파룬궁을 박해한 천고의 죄악을 감당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장쩌민이 죽기 전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다.

## 많은 경찰을 죽여 자신의 죄를 씻으려 하다

《장쩌민 그 사람》이라는 책에 따르면 장쩌민은 파룬궁 박해를 발동했기에 국내외 정의로운 인사들에게 고소당했다. 2003년 미국, 벨기에, 스페인, 대만 등 해외 파룬궁수련자들은 집단학살죄로 장쩌민을 고소했다.

극도의 공포에 질린 장쩌민은 암암리에 중공 대표를 해외로 파견해 해외 수련자와 접촉해 파룬궁을 무죄로 해주겠다고 회유했다. 그러나 장쩌민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당시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떠넘기려 했다. 수법은 문화대혁명 이후 많은 경찰을 죽여 민심을 달래면서 최악의 초점을 옮기려는

것과 같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610’ 인원, 경찰들을 죽여 파룬궁 수련자와 정의로운 인사들을 달래기 소하지 않게 하려 했다. 그러나 장쩌민의 계획은 파룬궁 단체에 의해 거절당했다.

## 지옥이 두려워 징벌을 피하려 하다

중공은 장쩌민의 죽음에 대한 통고문에서 ‘확고한 마르크스주의자’라고 했는데 무신론자라는 뜻이다. 사실 장쩌민은 미신을 아주 잘 믿었다. 집권하는 동안에 3가지 일을 했는데 ‘바이양뎨(白洋淀, 베이징에서 120킬로미터 떨어진 담수호)에 물을 가득 채웠고, 천안문의 깃발 높이를 올렸으며, 천단(명나라 시절 세운 제단으로 황제가 매년 동지날에 친히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곳)을 옮김으로써 풍수를 이용해 집권을 연장하고 응보를 받지 않으려 했다.

2001년 홍콩 잡지 소식에 따르면 장쩌민은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 커 지옥에 떨어질 것을 알고 지장보살에게 보호해달라고 빌기 시작했다고 했다. 장쩌민은 두려운 마음에 자신의 집에



해외 파룬궁수련자들이 수시로 대형 퍼레이드를 열어 장쩌민의 죄악을 세상에 알리고 있다.

서 ‘지장경(地藏经)’을 한 번 베껴 썼다고 했다. 그리고 2004년 6월 5일에 장쩌민 일행은 비밀리에 안후이성에 있는 구화산(九华山)의 잔탄린(旃檀林) 절에 가서 지장보살에게 향을 올렸다.

잔탄린 절은 사후의 형벌 중에서 무간지옥에 대해 가장 상세하게 설명했다. ‘뜨겁게 달구어진 쇠못을 사람의 관절뼈에 박는다. 그러면 그 구멍으로 화염이 뿜어져 나오면서 신체가 타서 재가 된다. 혹은 설산에서 칼바람이 불어 피부가 갈라진다. 그리고 칼날이 서 있는 나무에 매다는 등, 이것을 쉬지 않고 반복하는데 정말로

공포가 극에 달한다.’

## 죽은 후 무생지문(无生之门)으로 들어가다

역사상 북조시기 주무제(周武帝)는 불교를 박해한 죄로 독한 질병에 걸려 죽었고 지옥에서 벌을 받았다. 오늘날 장쩌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져 만겁이 지나도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아직도 파룬궁 박해에 참여하고 있는 중공 경찰과 관련자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하루빨리 박해에서 손을 떼기 바란다.



# 북주 무제가 지옥에 떨어진 이유

■ 글/ 루원(陆文)

남북조 시대인 서기 574년, 북주 무제(宇文邕)는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떠벌리면서 불교와 도교를 모두 멸하겠다고 경서와 소상을 불태우고 화상과 도사를 환속시켰다. 서기 575년, 무제는 북제(北齐)에 친히 출정하고 2년 뒤(서기 577년) 북방을 통일했다.

북제를 멸망시킨 후 무제는 북제에서 불교, 도교를 금지하고 절 4만 개를 저택으로 빼앗고 불교의 흔적을 불태우며 300만 승려를 강제로 환속시켜 북방의 불법(佛法)을 거의 소멸시켰다. 이듬해(서기 578년) 6월, 돌궐을 북벌하려 대군이 도착했으나 무제는 35세에 급사했다.

북주의 멸불(灭佛)의 화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열아홉 살의 태자 우문훈(宇文贇)이 왕위를 계승했는데 잔학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스물두 살에 병사했다. 어린 아들이 왕위에 오르면서 대권은 외조부 양견(杨坚, 수나라 건국 황제)의 손에 넘어갔

다. 서기 581년, 양견은 북주를 폐하고 수나라를 세웠다.

수나라 개황 11년(서기 598년), 대부사의 승려 조문창(赵文昌)은 갑자기 급사했지만 심장만은 조금 온기가 있었다. 가족들은 감히 입관하지 못했는데 그 후 다시 살아났다. 지옥에 간 조문창은 북주 무제 우문옹을 보았는데 그는 몸에 삼중 짐계 자물쇠를 차고 매우 침통하고 비참하게 “나를 알아보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조문창은 “저는 그 당시 호위관이었고 밤낮 당신을 호위했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무제는 말했다. “내 옛 신하였으니 잠시 이곳에 머물러주게. 돌아가서 날 대신해 수문제에게 내가 원래의 모든 죄를 거의 다 갚게 됐는데 오직 불법을 소멸한 죄악이 너무나 커서 지금까지 사면되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주게. 수 문제가 날 위해 공덕을 베푸는 일을 해준다면 내가 이를 통해 지옥을 떠날 수 있을 거라고 알려주게.”

이후 조문창은 다시 살아났다. 그는

북주 무제의 상황과 요청을 수문제에게 상주했다. 수 문제는 백성들에게 약간의 돈을 내 북주 무제를 위해 공덕을 쌓게 하고, 승려들에게 《금강반야경(金剛般若经)》을 낭독하게 했으며 사흘간 공양할 재를 차리게 했다. 또 사관(史官)에게 명해 이 일을 수나라 국사에 기록했다.(《법원주림(法苑珠林)》 참조)

수 문제가 북주 무제를 도와준 일이 유효하든 하지 않든지 북주 무제가 불법을 박해해 지옥에서 오랫동안 고생한 것은 사실이고, 수 문제가 불법을 공경하며 믿은 것도 사실이며, 조문창이 지옥에서 보고 들은 것도 사실이다. 수 문제가 이 일을 역사서에 기록하게 했기 때문이다.

중공은 정권 수립 이후 전 국민에게 무신론을 강요하고 불도신(佛道神)을 헐뜯었다. 문화대혁명에서 절을 부수고 불상을 없앤 것부터 마음을 닦고 선을 향하는 파룬파파 수련인을 박해한 것까지 중공이 저지른 죄는 얼마나 클까? 그리고 보면 ‘천멸중공(天灭中共)’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 당대 최대 매국노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네르친스크, 니콜라옴스크나야무레, 외흥안령(스타노보이 산맥), 사할린섬, 강동육십사둔 ... 선조들이 염향 자손에게 남긴 비옥한 땅이 오늘은 영원히 러시아 영토가 됐다.

1999년 12월 9~10일, 장쩌민은 베이징에서 러시아 대통령 옐친과 중·러 국경 의정서에 서명해 청나라 말 러시아에 강제로 침략당한 후 반환될 수 있었던 150만 평방킬로미터 영토를 자발적으로 포기했다. 그 면적은 동북 3성 총면적, 또는 대만 41개 면적과 맞먹는다!

장쩌민이 팔아먹은 중국 북방 영토는 몇 개 큰 지역으로 나뉜다. 하나는 외흥안령 이남, 흑룡강 이북 60여만 평방킬로미터 '외흥지역'이며, 다른 하나는 우수리강 동쪽 40만 평방킬로미터이고, 또 다른 하나는 탕누우량하이 지역 17만 평방킬로미터다.(구이저우성 면적과 같으며 1953년 UN 대회에서 표결로 중국 영토로 판정) 그리고 사할린섬 7.64평방킬로미터 면적이다. 장쩌민은 또 두만강에서 바다로 나아가는 출구를 러시아에 주어 동북에서 바다로 나아가는 출구를 봉쇄했다.

장쩌민은 전국 인민을 배신하고 매국 조약에 서명해, 청나라 강희 연간에 중국 관병이 피 흘려 싸워 이긴 《네르친스크 조약》을 철저히 부정했다. 장개석, 모택동도 인정하지 않은 중·러 불평등 조약을 체결한 것이다.

지난 세기 90년대 말 장쩌민은 또 윈난과 광시에 속했던 라오산(老山), 파카산(法卡山)을 베트남에 떴겼다. 중월 전쟁에서 적잖은 중국 전사가 이곳에 뼈를 묻었었다.

장쩌민은 당대 명실상부한 최대 매국노다.



1999년 12월, 장쩌민이 베이징에서 옐친과 매국 조약을 체결하며 애교를 부리는 추태를 보였다.

## 장쩌민 죽음을 경축

천년 썩은 하마(두꺼비) 요괴

말굽 난세에 사람의 탈을 썼다네

6.4의 피를 머리에 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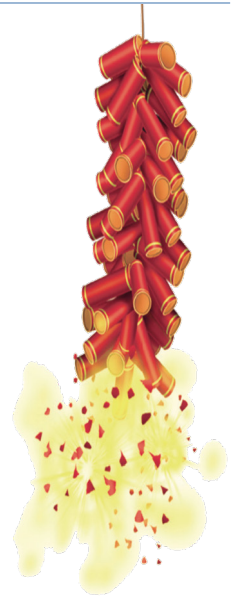
파룬궁 박해의 죄악이 넘실거리고

권력 금전 색정에 눈이 멀어 부패로 나라를 다스리니

도덕이 떨어져 평안한 날 없구나

오늘 장귀신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분주히 서로 알리며 폭죽 터뜨리네



## 4억이 넘는 중국인이 삼퇴하고 평안 보장

삼퇴(三退)는 탈당 사이트(tuidang.org, 중국 본토에서는 뒤표지 인터넷 접속 방법 참조)에 중공의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탈퇴를 성명하고 당년에 공산당 조직에 가입할 때 했던 독한 맹세를 폐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늘이 중공을 징벌할 때 당신은 연루되지 않을 것이다. 실명, 가명, 애명 모두 유효하며 신계서는 사람의 마음만 보신다. 지금까지 4억 6백만 명이 넘는 중국인이 삼퇴하고 평안을 보장했다. (주의: 연령 초과로 인한 자진 탈퇴나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동탈퇴는 삼퇴로 간주하지 않음.)

무료 삼퇴 전화: 001-416-361-9895, 001-514-342-1023.



해외 파룬궁 수련생은 매년 현지 신년 대형 퍼레이드에 초청받았다. 사자춤과 용춤은 그들이 보존하는 전통행사 중 하나로서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중국 민속과 전통문화를 시민과 함께 나눈다. 사진은 뉴욕의 서양인 파룬궁 수련생들로 구성된 사자춤과 용춤 팀.

## 봉쇄 돌파 프로그램을 얻는 방법

PC 버전:

<https://j.mp/fgp88>

안드로이드 VPN:

<https://j.mp/fgv88>

**주의사항:** 국산 브라우저에서는 위의 링크가 열리지 않을 수 있기에 IE, Edge, Chrome 혹은 Firefox 등 브라우저를 이용하기 바란다.